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의 유형구조와 의미

서 영 숙*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맺음말 - 유형구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
| II.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징 | |

I. 머리말

서사민요의 유형구조에 대해서는 조동일의 연구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 있다.¹⁾ 그에 따르면 서사민요는 어느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고난 - 해결의 시도 - 좌절 - (해결)²⁾’의 단락소들로 되어 있어서, 단락소에 의한 구조는 일치한다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1)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중보판, 63-94면 참조. 서사민요의 장르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동일 이후 강동학, 고혜경, 박경수, 이정아, 허남춘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서사민요가 지니고 있는 서정성, 서술성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사민요의 장르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으로 유보하고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 2) 네개의 단락소 중 마지막 해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로 표시하였다.

고 한다. 또한 모든 서사민요가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은 평민적 미학의 특징이며, 정상적 해결 또는 역설적 해결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극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³⁾

그의 구조론은 유형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각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는 전체 유형구조에서 벗어나 독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 더러 발견되는데, 이런 각편이 다시 전승되기 어렵다 해서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본다. 민요는 공동의 전승이면서 개인의 창작이므로, 그 전승적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적 측면 역시 중요하며, 아울러 유형 차원의 구조나 주제뿐만 아니라 각편 차원의 구조나 주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유형이나 각편에 따라서는 아무런 고난 없이 서두가 시작되는 경우도 여럿 있으며, 소재 및 구조의 측면에서 희극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서사민요 중 주로 총각과 처녀와의 애정, 구혼, 상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를 대상으로 그 유형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⁴⁾ '시집식구 - 며느리'형 서사민요가 주로 여성의 시집살이로 인한 고난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유형은 주로 미혼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 서사민요의 담담층인 평민여성들이 혼인 전 애정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자료는 필자의 『시집살이노래 연구』 수록 자료 및 미수록 자료,⁵⁾ 조동일의

3) 이 주장은 그 스스로 「희극적 서사민요 연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극적 서사민요는 비극적 서사민요에 비해서 유형의 수도 적고 그 소재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위치가 불안하여 쉽사리 살아 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동일, 위의 책, 369- 397면 참조.

4) 서사민요의 유형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유형을 판별하는 근본 핵심은 서사적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관계에 있다. 필자는 이에 상위유형을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관계에 따라 A 시집식구-며느리, B 남편-아내, C 친정식구-딸, D 부모-자식, E 오빠-동생, F 삼촌식구-조카, G 신랑-신부, H 외간남자-여자, I 총각-처녀, J 본처-첩, K 처남-매형, L 기타 12형으로 나누고, 주인공과 상대인물이 일으키는 중심적인 사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참고, 「서사민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 '시집식구-며느리'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221-246면.

『서사민요연구』 수록 자료,⁶⁾ 『한국민요대전』 자료 중 서사민요⁷⁾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 『한국구비문학대계』 수록 자료⁸⁾를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II.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징

총각과 처녀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대상으로 노래하고 있는 서사민요 중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작품은 필자 자료 10편, 『서사민요연구』 자료 6편, 『한국민요대전』 자료 9편으로 총 25편이다.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 I형은 필자의 서사민요 유형 분류에 의한 기호이다.⁹⁾

- 5) 1981년 4월, 7월, 1982년 4월에 전남 곡성군 곡성읍, 오폭면, 고달면 세 지역을 대상으로 368편의 민요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중 서사민요는 81편이다. 필자의 『시집살이노래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6에는 시집살이노래만을 자료로 수록하고 있어서 많은 서사민요가 미수록 상태이다. 서사민요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자료와 함께 간행할 예정이다.
- 6) 조동일, 위의책에 1969년 7, 8월과 1970년 1, 2월에 경북 영양, 청송, 영천군에서 조사한 170편의 자료와 이후 같은 책 증보판에 추가 발표한 희극적 서사민요 자료 5편이 수록되어 있다.
- 7) 『한국민요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편, 문화방송, 1993 - 1996을 대상으로 총 102편의 서사민요를 찾아낼 수 있었다.
- 8)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서사민요가 다수 수록되어 있으나 그 유형의 종류와 각편수에 대해서는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해 미처 조사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사민요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9) 서사민요 유형 중 Gb 여자의 저주로 혼인날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꿰매주는 여자,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Hd 중이 유혹하자 거절하는 여자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등의 유형이 ‘총각 - 처녀’형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주 갈등이 Gb의 경우 신랑과 신부의 혼사장애에, Ha, Hc, Hd, He의 경우 단순히 총각과 처녀가 아닌, 특정한 신분에 있는 외간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놓여져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다루기로 한다.

1. 총각 - 처녀

Ia 처녀가 잃어버린 땡기로 구애하는 총각.

새터18, 새터48, 새터93, 새터125, 새터135, 새터143, 옥갓24, L1, L2, L3, L4, L5, M10, 충북2-15, 충남9-15, 전북12-16, 전남4-19 (17편)

Ib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새터19, 새터60, 옥갓12, 전북3-11 (4편)

Ic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

충북2-9, 충남2-10, 경북13-8, 경남6-4 (4편)¹⁰⁾

이제 이들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에 속하는 세 유형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유형의 구조적 특징은 사건의 전개 양상과 결말에 따라 기대성취형, 요구좌절형, 양면복합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는 주인공과 상대 인물의 갈등 상황에서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 귀결되는지에 따라 나눈 것이다. 기대성취형은 주인공의 요구에 맞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 요구좌절형은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거나 주인공의 요구에 상반되게 해결되는 경우, 양면복합형은 기대의 성취와 좌절이 함께 드러나 있는 경우로서 주인공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성취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서사민요의 한 유형에 속하는 각편이 모두 이 중 한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이라도 각편에 따라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나기도 한다.

1) 처녀가 잃어버린 땡기로 구애하는 총각

처녀가 널을 뛰다 담장 밖으로 땡기를 잃어버리자 이를 주는 총각이 처녀에게 땡기를 돌려 줄테니 자신과 혼인을 하자고 구애를 하는 노래이다. 대부분 처녀가 이를 거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총각의 시도는 좌절되고 만다. 땡기 외에도 금봉채와 같은 머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 각편도 있으나 흔히 <땡기노래>로 불릴 만큼 땡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 유형의 서사 전개를 단락으로 나

10) 새터18, 옥갓12 등은 필자 자료의 일련번호이고, L1, M10 등은 조동일 자료의 일련번호이며, 충북2-15, 전북12-16 등은 『한국민요대전』 자료의 일련번호이다.

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식구들이 장만해준 땡기를 널을 뛰다 잃어버린다. (고난)
- b) 총각이 주어서 구혼한다. (해결의 시도)
- c) 처녀가 거절한다. (좌절 = 기대)

이처럼 이 유형은 '고난 - 해결의 시도 - 좌절'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이 총각의 구혼을 거절하여 땡기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일면 좌절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단지 땡기를 찾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하는 것이야말로 좌절 중의 좌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궁지에 몰린 처녀가 그런 지경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데서 오히려 주인공의 자아가 고양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는 좌절을 넘어선 기대의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각에게는 좌절이지만 처녀에게는 기대의 성취로 볼 수 있는 '양면복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작품을 통해 단락의 전개를 살펴 보기로 하자.

<새터 18> 허봉택(65), 1981. 7. 20. 서영숙 조사

안안순이 <노리개노래>를 부르자 창자가 곧이어 불렀다. 노래가 불려지고 난 뒤 옛날 총각, 처녀의 차림새, 생활 규범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옛날에는 18-19세가 되면 여자는 '노큰애기'라고 했고 남자는 24-25세가 되면 '노총각'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처음에는 폭조를 넣어 시작했으나 중간에 청중(안안순)이 빠진 부분을 지적하자 처음부터 다시 사설로 했다.

올아버지 서울가서 떠다준 땡기
 올어머니 접어준땡기 올리성네 접어준땡기
 올어머니 대려준땡기
 담안에다 널을뛰다 잊었고야 잊었고야
 [청중: 중간에서 떼어부네. 새로 해. "우리오빠 호령땡기..."]
 [양개, 처음에 그래 갖고]
 [창자는 '올어머니 대려준 땡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했다.]
 우리성님 눈치땡기 우리오빠 호령땡기
 [그래 참.]
 담안에다 널을뛰다 잊었고야 잊었고야

친구친구 내땀기 좇았그땀 나를주소

[형제로]

아랫집 총각이 좇어가지

총각총각 내땀기 좇았그땀 나를주소

내땀기를 찾을라거등 국술밥술 걸어놓고

치매자락 홀매자락 마주지면 너를주마

에라흔놈 행실존놈 돈닷냥만 배렸으면

그보다도 더존땀기 흘류허이 드릴텐디

땀기땀에 치매자락 홀미자락 마주줄거나

[그리고 호령을 해 줬다네]

[청중: 큰 얘기가...]

[그렇게 옛날부텃 아버지가 그 땀기 하나 떠다 준 것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아버지는 울개를 눈치를 하고, 오빠는 호령을 할거요.]

여기에서 보면 처녀는 식구들이 마련해 준 귀한 땀기로 예쁘게 머리를 장식하고 널을 뿔다. 이 땀기를 널을 뿔다 담장 밖으로 떨어뜨린다. 이는 서사 전개의 단락소로 볼 때 ‘고난’에 해당한다. 온 식구가 나서서 마련해 준 땀기니 만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인 데 이를 잃어버렸으니 식구들로부터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되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땀기는 일종의 ‘처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하기 전의 처녀는 머리를 길게 땅아 내려 땀기로 장식을 해야 하며 혼인을 하고서야 비로소 땀기를 풀어내고 머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므로 처녀에게 있어서 땀기를 뿔다는 것은 처녀성을 잃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처녀의 상징적인 물건인 땀기를 잃어 버렸으니 처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총각이 그 땀기를 주웠다고 하니 너무나 반갑다. 귀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땀기를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총각은 다른 대가는 마다하고 처녀에게 구혼을 한다. “국술밥술 걸어놓고 / 치매자락 홀매자락 마주지면 너를주마”는 청혼의 표현이다. 일종의 ‘해결의 시도’인 셈이다. 물론 이 구애가 청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처녀에게는 한번 땀기를 잃어버린 대가 치곤 너무나 큰 대가라 할 수 있다. 결국 처녀는 땀기로 인해 자신의 혼인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땀기를 찾으려는 ‘해결의 시도’는 총각의 구애를 거절함으로써 ‘좌절’하고 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처녀에게 단지 땀기를 찾는 행위의 좌절일 뿐,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막중한 대사인 혼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처녀 의사의 성취라는 점에서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기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 작품의 경우에는 총각의 요구에 처녀가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망친 것으로 한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한 '좌절'임을 보여주고 있다. 총각이 “너와 나와 단둘이서 결혼만 한다면야 너를주마”고 하자, 처녀가 “영글렀구나 영글렀어 / 가마타고 시집가보기는 영글렀네” 하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총각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성취형'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향유자인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요구좌절형'에 속한다.

<충남 연기 9-15> 임명순(1930), 1993. 12. 30. 문화방송 조사.

한양을 가서 사오신 댕기를 두냥을 주고서 접어다가
성안에서 그네를 띠다 성밖으로도 잊었으니
열두살먹은 이도령아 내댕기 좇았건 나를다오
영글렀구나 영글렀어 내댕기 찾기는 영글렀네
준치를 잡아 은혜를 갚나 삼냥을 접어서 은혜를갚나
준치와 삼냥은 다버리고
열두푼 병풍은 내가지고 열두푼 치마를 내가입고
너와나와 단둘이서 결혼만 한다면야 너를주마
영글렀구나 영글렀어
가마타고 시집가보기는 영글렀네

이상에서 볼 때 <처녀가 잃어버린 댕기로 구애하는 총각> 유형은 근대 사회 이전의 총각과 처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구애와 청혼의 양상을 보여준다. 대개는 총각이 처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고 처녀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전혀 예기치 않던 상황에 매우 당혹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총각과 처녀간의 자유로운 연애가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에서 댕기를 인연으로 해 부모 몰래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댕기를 잃은 것, 댕기로 인해 낯선 총각으로부터 구애를 받는 것조차 부정하고 떳떳치 못한 일로 여길 만큼 당대 성규범이 여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유형의 대부분의 각편에 나타나

듯이 혼인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평민 여성들의 자존적 태도와 의지는 높이 사야 하리라고 본다.

2)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처녀 - 총각’형 서사민요 중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유형으로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 세 편(<새터19>, <새터60>, <옥갓12>)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노래로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경상남도 의령군편)』 소개 자료(칠곡면 민요 7)가 있는데, 이 자료의 경우 순수한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유형이라기 보다는 <혼인을 기다리다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유형과의 복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총각이 빨래하는 처녀를 보고 돌아간뒤 상사병을 죽는 화소가 있으므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¹¹⁾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노래를 창자나 청중들은 <서답 노래>, <서답게 노래>, <개삼정노래>라고 불렀는데, ‘서답게’, ‘개삼정’은 여자들이 월경할 때 착용하는 천, 즉 월경대를 말한다.

서사민요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은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부른다.¹²⁾ 일을 하면서 일의 지루함과 고단함, 자신들의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 긴 이야기로 되어 있는 노래 사실이 필요했을 것이다.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은 다른 서사 민요에 비해 비교적 장편의 사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처녀와 총각의 사랑과 이별, 죽음, 혼인 등 매우 흥미로운 요소로 전개되고 있어 여성들의 일노래로서 많이 불려졌으리라 생각된다.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을 창자나 청중은 ‘짜잔하다’고 하며 잘 부르려 하지 않았다. 이는 노래 내용에 여성의 월경대나 남녀간의 성적인 교제에

11) 이외에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다가 선비를 만난 뒤 집에서 쫓겨 난 처녀가 총각을 찾아가 결혼해 잘 살았다는 ‘기대성취형’의 서사민요가 있다. 이는 <강태백과 동국각시>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유형으로서(강진옥, 『여성서사민요에 나타난 관계양상과 향유층 의식』,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493면), 여기에서 다루는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의 화소는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취급해야 하리라고 본다.

12)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창자들은 발매면서, 불 때면서 불렀다고 했다. 창자는 이외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노래를 많이 배웠다고 한다.

관한 내용이 나오므로 남들 앞에 내놓는 것을 그리 멋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노래가 다른 노래에 비해 그리 많이 조사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한다.

필자가 조사한 세 편의 노래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새터 19>의 경우는 거의 서사적 줄거리를 완전히 갖추고 있긴 하나 세부 묘사는 그리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이에 비해 <새터 60>의 경우는 서답게 빨래를 나가는 과정, 빨래를 하는 모습, 처녀와 총각이 수작을 주고받는 모습, 총각이 집에 돌아가 병이 들어 죽는 과정 등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창자가 연로한 데다가 말이 매우 빨라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은 편이다. <옥갓 12>는 <새터 60>과 유사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에 비해 소략하다.

이들 세 노래는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처녀에 대한 총각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죽음을 거쳐 혼인으로 성사되는 '기대성취형'으로 되어 있다. 세 노래의 공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서사적 단락을 나눈 뒤, <새터 60>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 전개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처녀가 강가에 월경대 빨래를 간다.
- b) 총각이 물을 떠 달라고 한다.
- c) 깨끗한 물을 떠 주니 월경수만 달라고 한다.
- d) 그래도 깨끗한 물을 떠 주니 물은 마다하고 손만 잡고 간다.
- e) 총각이 집에 돌아가 상사병을 앓는다.
- f) 갖은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는다.
- g) 죽어서 상여가 나가다 처녀 집 앞에 선다.
- h) 상여 위에 속적삼을 덮어주니(꽃을 문지르니) 총각이 살아난다.
- i) 시부모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고 혼인한다.

사건의 발단은 처녀가 월경대 빨래를 하는데, 총각이 와 월경수를 떠 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때 처녀는 월경수를 떠 주지 않으려고 하고, 총각은 한사코 이를 요구한다. 총각이 월경수를 떠 달라고 하는 것은 처녀에 대한 구애, 구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월경수는 그만큼 전통 사회의 여성에게 있어서 은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세터 60> 신순임(83), 1981. 7. 22. 서영숙 조사.

강남서나온 백달백사주는 금자옥자 둘러잡고
구부구부 서순구부 은가세를 손에들고
어리쌍둥 배어내서 외무료팍에 엉겨놓고
엉침덩침 누빈 것이 신닷줄을 누볐구나
[아그, 짜잔해서 못허겠구마.]
[청중: 아, 해 주시오. 그렇게도 우린 못 형계.]
[재조사에서는 창자가 “그것이 다 너그 몸똥이다.”라고 했다. 또한 ‘남방
사죽 꿀을달아 / 북방사죽 선을둘러’가 첨가된다.)
밤중밤중 야밤중에 허리아로 둘러두고
세조금 사흘만에
[재조사시에 창자는 “지랄이야, 사흘까지 차고 있었나 몰라.”라고 했다.]
어리선득 끌러내서
상나무 바가치에다 담갔다
전나무 방아치를 손에들고
상나무 바가치를 옆에찌고
열두모퉁 돌아가서 은돌놋돌 마주놓고
아리찰찰 썬노랑게 도령보소 도령보소
[아그 짜잖어, 잉?]
[청중: 아니요, 그렇게 유식한 노래가 좋대요.]
삼단같은 조소머리 물길같이 흘러뵈고
반비단 모란땀이 붕에만치 물려들여
허리아래 편저놓고 열두쪽 세경보선
감당까신에 아리살득 세워서
떠달라네 떠달라네 세숫물을 떠달라네
한번그래도 아니듣고 두 번그래도 아니듣고
삼세번을 거듭해서 상나무 바가치를
씻고씻고 또씻고
[청중: 웃음]
월경수를 제쳐놓고 익경수를 떠다중계
익경수를 마다하고 월경수를 떠달라네
[청중: 옛날에는 그리 상한이 셋어.]

이렇게 월경수를 놓고 처녀와 총각이 옥신각신하다가 <세터 19>에서는 손만 잡고 돌아가고, <세터 60>에서는 하룻밤을 같이 보낸 뒤 헤어진다. <세터 60>에서는 은유적이긴 하지만 하룻밤 사이 두 사람 간에 깊은 인연이 맺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은 혼인으로까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모양이다. 집으로 돌아 간 총각은 글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 상사병을 앓게 된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지만 낫지 못하고 죽고 만다.

날지다리네 날지다리네 학광서당이 날지달러
학광서당을 높이올라 공자자를 들여다봉게
공자자를 다잊어 부렸다네
동자를 앞세우고 이간문전 들어강게
[재조사시에는 '열두대문 열고 들어강게'라고 함.]
정지 내 좋아들이 쏙나심서
도련님 진지조반 늦어졌소
진지상을 들려들고 한번뜨고 두 번뜨고 세 번뜨게
먹을질이 전혀없네
아부님도 들어오시고 어머님도 들어오시래라
그래서 들어강게
초당안에 삼석순은 눈에든 보름눈이 되었다고
죽어불드라네
[재조사시에는 '콩단으로 매장하고 / 백비단 소로베에'가 첨가됨.]

이야기의 절정은 총각의 상여가 나가다 처녀 집 앞에 서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때 처녀가 나와 상여 위에 속적삼을 덮어 주거나 사람을 살려내는 꽃을 문질러 준다. 이에 총각이 살아나고 처녀는 시부모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혼인함으로써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

초당안에 삼석순은 임인줄 알걸랑은
속적삼이나 던져달라고
[그렇게로]
삼십일명 좋아들이 팔십일명 행상꾼들
질위에 행상놓고
[질아래로 물러가라고 하더란다. 대치, 질위에 행상 놓고 질아래로 물러
성게]
흰꽃을 문대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이승부부 뿔라그당 어서베베 일어나오
새파랑꽃을 문대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이승부부 뿔라그당 어서베베 일어나오

빨간꽃을 문대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이승부부 뿔라그당 어서베베 일어나오
[항게 별떡 일어나 불드란다. 그런데 인자 저 뿔라그나 또.]
삼대독자 외아들 무남동자 외아들
살랐으니 무슨지사가 나올까
[그렇게로]
열녀충신 내며늘아 효자충신 내며늘아
무남독녀 내며늘아
남한산성 관솔불은 꺼진불로 살가내고
어그벵벵 나락밥은 팔십노인도 살가넌단다
[그르고 끝이여.]
[재조사시에는 “그르고 잘 살드래.”라고 함.]

이 작품의 서사적 전개는 ‘갈등의 발단 - 전개 - 절정 - 해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조동일의 서사민요의 유형구조를 ‘고난 - 해결의 시도 - 좌절 - (해결)’¹³⁾로 분석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총각이 처녀를 만나 첫 눈에 반하지만 처녀는 이에 무관심하니 ‘고난’이다. 총각이 처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 월경수를 떠달라고 하지만 처녀가 이를 거절하니 ‘해결의 시도’와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병이 들어 그 병을 낫게 해 보려고 갖은 애를 써 보지만 낫지 않고 죽고 마니 또 다른 ‘해결의 시도’와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결의 시도’와 ‘좌절’은 몇 번이나 거듭된다는 데에 서사민요의 특징이 있다. 각편에 따라 ‘해결의 시도’와 ‘좌절’이 한 번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여러 번의 ‘해결의 시도’와 ‘좌절’을 거친다. 이는 주인공이 겪는 삶이 실제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며 쉽게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첫 번에 이루어지는 ‘해결의 시도’가 여러 번 거듭될수록 겪게 되는 ‘좌절’은 그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좌절’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 사랑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랑이 간절하고 진실했음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그 사랑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

13) 조동일, 앞의 책, 91면 참조.

회에 과문을 일으키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갈등의 막바지에 다다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대전환을 꾀하는 또 다른 '해결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총각의 상여가 처녀의 집 앞에 섬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을 호소하고 이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처녀는 자신의 속적삼을 덮어 주거나 생명꽃을 문지르는 것으로써 화답한다.¹⁴⁾ 속적삼을 덮어준다는 것은 성적 행위의 은유적 표현이다. 여인이 자신의 속적삼을 벗어 덮어주는 것은 총각의 자신에 대한 지순한 사랑을 허락함을 의미한다. 이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감동에 의한 자발적 행위이며 이 행위의 감응으로 죽었던 총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총각이 살아남으로써 드디어 국면의 대 전환이 이루어진다. 죽었던 아들을 되찾게 된 총각의 부모는 처녀를 “열녀충신 내며늘아 효자충신 내며늘아”라 칭송하며 모든 것을 물려 주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혼인 시에 시부모와 남편에게 종속적 지위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면서 시댁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매우 파격적이다. 이는 노래를 통해서나마 현실과는 상반되는 상황을 '해결'에 설정해 놓음으로써 심리적 억압의 해소와 내면적 우월 의식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유형과 <혼인을 기다리다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유형이 결합된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칠곡편 민요 7)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각편은 처녀가 강가에 빨래를 가서 총각과 만난 뒤 총각이 죽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과 '처녀 집 앞에 멈춘 상여'의 모티브가 있으므로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기대성취형'에서 처녀가 총각을 살려내는 것과는 달리 처녀가 상여를 따라가 처녀과부로 살게 된다는 비극적 내용으로 되어 있어 '요구좌절형'에 속한다. 서사적 단락을 나누어서 그 내용을

14) 여기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생명꽃을 문지르는 것은 서사무가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가 죽은 부왕을 살려내기 위해 저승에서 구해 온 꽃을 문지르는 것과 동일한 화소로 되어 있다. 이는 서사무가와 서사민요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 준다.

‘기대성취형’과 비교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처녀가 강가에 빨래하러 간다.
- b) 총각이 물을 떠달라고 한다.
- c)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집에 돌아 간 총각이 상사병을 앓는다.
- d) 갖은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는다.
- e) 죽어서 상여가 나가다 처녀 집 앞에 선다.
- f) 상여 위에 속적삼을 덮어줘도 움직이지 않는다.
- g) 처녀가 횡등을 타고 따라 나서니 상여가 움직인다.
- h) 시택에 가서 처녀과부로 이름짓고 산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기대성취형’과 같은 발단과 전개 과정이 같기는 하나 최종 해결에서 전혀 다른 결말을 취하고 있다. 같은 유형의 노래라 할지라도 이렇게 결말 처리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하위 유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에서는 유형간의 결합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역시 구비문학 향유층의 다양한 의식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요구좌절형’에서는 ‘기대성취형’과는 달리 월경대가 아닌 보통 빨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처녀와 총각간의 결연의 필연성을 약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대성취형’에서는 월경대를 통해 처녀의 은밀한 요소가 총각과 공유되지만 여기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할 수 있는 일반 빨래를 함으로써 사랑이 유발되는 동기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대성취형’에서의 처녀와 ‘요구좌절형’에서의 처녀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기대성취형’에서의 처녀는 총각에게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지만, ‘요구좌절형’에서의 처녀는 총각에게 오히려 언제 봤다고 물을 달라느냐며 면박을 줄 정도로 냉랭하다. 이는 ‘기대성취형’의 처녀는 총각에 대한 연정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요구좌절형’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작품이 그 좋은 예이다. 여기에서 도령이 “떠서주소 떠서주소 냉수한잔 떠서주소” 하자, 처녀는 “니언제라 날봤다고 냉수한잔 도라하노” 하며 그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고 만다. 그러니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성취될 리 만무하다.

<구비대계 8-10> 칠곡면 민요 715)

이방저방 양두방에 침자질로 하시다가
 심심하고 심심해서 몸종을 아부시고
 절에새미 지내치고 멘테새미 냉수가니
 난데없는 남도령이 남대문을 열뜨리미
 떠서주소 떠서주소 냉수한잔 떠서주소
 니언제라 날봤다고 냉수한잔 도라하노

죽음을 뛰어 넘어 혼인을 이루는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기대성취형'이라고 한다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이인데도 총각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혼인을 해야 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요구좌절형'이다.

'기대성취형'과 '요구좌절형'의 이러한 차이는 처녀가 죽은 총각의 상여에 속적삼을 덮어 주었을 때에 아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다. '기대성취형'에서는 속적삼을 덮는 행위로 인해 총각이 살아나게 되나, '요구좌절형'에서는 속적삼을 덮어 주었는데도 상여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결국 처녀가 흰등을 타고 떠나서자 상여가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흰등을 타고 떠나서자 것은 죽은 총각을 신앙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전혀 사랑도 하지 않은, 게다가 정혼조차 하지 않은 총각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우며 축복받아야 할 신부가 화려한 꽃가마가 아닌 초라한 흰 가마(흰등)을 타고 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불행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구러 돌아가서
 돌아간날 샘일만에 편지왔네 편지왔소
 딸아딸아 둘째딸아 니일도 큰일인데
 내말조끔 들어봐라 니일[청중이 "속적삼 벗어서."하자 다시 시작했다]
 아홉가닥 땅은머리 구름같이 풀어주라
 그리해도 안가거등 꽃맹이라 신던발에
 우묵신을 신어주라 그리해도 아니가면
 니입터나 속옷적삼 구마같이 걸어주라

15) 앞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약호로 '구비대계'와 자료 번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해도 아니가면 흰등타고 나서거라
이래해도 아니가고 저리해도 아니가니
흰등타고 나서니께 부지거처 따라가네

이렇게 흰등을 타고 찾아 들어 간 시택에서는 아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 온 며느리를 환대할 리가 없다. ‘기대성취형’에서 처녀가 죽었던 총각을 살려냄으로써 시부모에게 갖은 칭송과 극진한 대우를 받는 데 비해, ‘요구좌절형’에서는 가뜩이나 원통하고 막막한 상태에 있는 며느리를 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처녀의 서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¹⁶⁾

그러구러 따라가서 초상장사 마치시고
시가집에 가니께네 시아바씨 하는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무엇보고 묵어낼래
시오마씨 썩나서미 아가아가 며늘아가
무엇보고 묵어낼래 그아묵던 식기대접
그것보고 묵어낼래 아버님도 그말마소
어머님도 그말마소 이내나는 이름이나 짓거들랑
청춘과부 짓지말고 애문과부 지어주소
[애문과부다. 맞다. 애문과부다. 애문과부거등.]

그러나 ‘기대성취형’과 ‘요구좌절형’이 이렇게 상반된 내용 전개와 결말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두 하위 유형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역시 상반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행복과 불행은 결국 뒤집어 보면 하나임을 두 하위유형의 결말 방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대성취형’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비현실적 결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요구좌절형’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현실적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대성취형’이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끼리의 혼인이라는 점에서 ‘정상’이라고 한다면, ‘요구좌절형’은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의 혼인이라는 점에서 ‘비정상’이다.¹⁷⁾

16) 이 유형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전라 지역에는 ‘기대성취형’이, 경상 지역에는 ‘요구좌절형’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자료를 확대할 때에도 과연 그러한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의 문화나 지역민의 성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등에 대해서 고찰할 여지가 있다.

결국 전통 사회의 여성들에게 혼인과 사랑은 비현실적인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행복이 이루어지며, 현실적인 방법에 의해 비정상적인 불행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는 그들의 인식 속에 정상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현실 세계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노래>에 있어서 '기대성취형'이건, '요구좌절형'이건 모두 여성의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양면임을 드러내 준다.

3)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

많은 서사민요가 비극적인 소재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이 유형은 나물 캐러 간 총각과 처녀가 산중에서 사랑을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파격적이다. 노래의 내용이 유희적인 분위기어서인지 논에서 일을 마친 뒤 여러 사람이 함께 풍장을 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인 풍장노래의 선소리 사설로 부르기도 한다. 흔히 <남도령 서치자노래> 또는 <나물캐는 노래>라고 부른다.

그 서사적 전개를 단락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a) 총각과 처녀가 나물을 캐러 간다.
- b) 나물을 켄 후 점심을 나누어 먹는다.
- c) 점심 후 함께 잠을 잔다.
- d) 백년언약을 맺는다.

서사 단락은 아주 간단하지만 나물을 캐러 가는 과정, 나물을 캐는 모습, 점심을 나누어 먹는 모습, 함께 잠자리를 준비하고 나누는 대화 등이 자세하고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어 매우 흥미로운 유형이다. 산 속에서 단 둘이 총각과 처녀가 나물을 캐다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아주 흥겹게 전개되며 이를 통해 백

17) 조동일은 앞의 책, 92-93면에서 서사민요에 나타난 고난의 해결 방법이 '정상적인 해결'과 '비정상적이고 역설적인 해결'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비정상적이고 역설적인 해결이란 모두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으로써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더욱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불가능은 가능"이라는 현실 자체의 역설을 특징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았다.

년가약을 맺는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는 '기대성취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각편에 따라서 총각이 구혼을 하나 처녀가 거절을 한다든지, 혼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 절로 찾아간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제석풀이 무가나 이와 같은 소재를 노래한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제석님네 따님애기 노래)>의 뒷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경남 의령 6-4> 박연악(1911), 1922. 7. 2. 문화방송 조사.

남산밑에 남도령아 서산밑에 서치녀야
오늘일기가 청명하다 나물캐러 가나보자
나물캐러 갈라하니 소구리가 있나 칼이있나
남도령 춤치 털털팅께 돈반돈이 들었구나
일전주고 칼을사고 이전은주고 소구리사고
꽃방우리 옆에지고 산들이산들 들어간다
올라가민 올개사리 아듬다듬 꺾어담고
내리가민 늦개사리 아듬다듬 꺾어담고
경치야좋은 마우 끝에 점심밥을 패여보니
남도령밥은 패여보니 삼년이나 묵은난 콩보리밥
서치녀밥을 패여보니 울무겉은 쌀뺨이라
서치녀밥은 남도령이 묵고 남도령밥은 서치녀가 묵고
내가 니밥을 묵었으니 백년언약을 맺어야다
얼씨구좋네 절씨구좋네 이렇게 좋을줄 내몰랐다

여기에서 보면 남도령과 서치녀는 나물을 캐고 난 뒤 점심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서치녀밥은 남도령이 묵고 남도령밥은 서치녀가 묵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곧장 “내가 니밥을 묵었으니 백년언약을 맺어야다” 한다. 총각과 처녀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저함도 없다. 총각과 처녀의 사이가 매우 개방적으로 그러면서도 결코 난잡하지 않게, 오히려 정겹고 다감하게 그려져 있다.

이 노래를 충북 영동 지역이나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논매기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풍장노래>로 부른다. 한 사람이 이 노래의 사설을 앞소리로 매기면 여러 사람이 뒷소리로 “칭이나 칭칭나네”하며 받는다. 두레로 김매기를

하고 난 뒤 눈을 다 매고 상머슴을 소에 거꾸로 태우고 풍장을 치며 마을로 행진하면서 부른다고 한다. 이 각편에서는 남도령과 서치녀가 밥을 나누어 먹은 뒤, 서로 잠자리를 갖는 장면까지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 2-9> 앞: 김돈목(남 1922), 뒤: 이승봉(남 1920), 1993. 12. 8. 문화방송 조사.

그럭저럭 해가지였네 /
앞치매 벗어서 자리를 깔고서 /
에 속치매 벗어서 훌이불 하구야 /
에 그럭저럭 잠을야 자였네 /
앞치매 벗어서 자리를 깔고서 /
에 속치매 벗어서 훌이불 하구야 /
에 그럭저럭 잠을야 자였네 /18)

이렇게 서사민요 중 총각과 처녀가 만나 아무런 격의 없이 사랑을 나누는 내용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만남과 정사가 외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꾸밈없이 소박하게 여겨져 은근한 웃음을 자아낸다. 성적인 문제를 은밀하게 감추거나 경직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선하게 받아들이는 향유층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을 하나 처녀가 오히려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한번 몸을 허락한 남자에게 자신의 일생을 걸어야 한다는 맹목적 정조 관념에서조차 자유로움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유형은 전통적 혼인의 관습과 정절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총각과 처녀의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 / 표시는 “칭이나 칭칭나네”하는 후렴이 나오는 부분을 나타낸다.

Ⅲ. 맺음말 - 유형구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볼 때 ‘총각-치녀’형 서사민요는 같은 치녀와 총각간의 구애와 사랑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유형에 따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실현하는 자세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묶어 본다면 불합리한 혼인 제도에 의해 개인의 사랑이 희생되는 경우와 제도나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치녀가 잃어버린 땡기로 구애하는 총각>과 <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이 전자의 경우에,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치녀>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전자의 경우가 주어진 처지를 거부하거나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주어진 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부정에 의해 역설적 해결을, 후자의 경우는 긍정에 의해 정상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부정에 의한 역설적 해결은 그만큼 정상적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현실의 불합리한 혼인 제도 아래에서는 치녀와 총각간의 자유로운 사랑의 성취가 불가능함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치녀>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유형은 서사민요가 일반적으로 불리는 상황(여성이 길쌈, 집안일, 밭매는 일 등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부르는 점)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창작, 향유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이 유형은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주로 논매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풍장소리와 같은 유희적인 상황에서 부른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일반적인 서사민요와는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심화된 고찰이 필요하다.

‘총각 - 치녀’형 서사민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랑의 거부나 사랑의 관철에 모두 여성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치녀가 잃어버린 땡기로 구애하는 총각>에서 총각의 구애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도, <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에서 죽은 총각을 살려내는 것도 모두 여성이며, <나물 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치녀>에서 역시 자연스럽게 총각과 사

량을 나누는 것도 여성이다. 이는 서사민요의 담당층인 서민 여성이 사랑의 요구와 실현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함을 보여 준다. 이는 시집을 간 이후의 여성이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으로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집식구-며느리' 유형에서 주인공인 며느리가 부당한 이유로 구박을 하는 시집식구들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자살을 하거나 중이 되거나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¹⁹⁾

'총각 - 처녀'형 서사민요는 총각과 처녀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소재를 '잃어버린 댕기', '월경대 빨래', '상사병으로 인한 죽음', '상여의 멈춤', '산에서의 사랑 나눔'이라는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화소를 통해 사건화함으로써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댕기의 종류, 월경대의 제작 과정, 나물의 종류 등에 대한 아름답고 섬세한 묘사와 열거는 민요에서만 대할 수 있는 토속어의 정수를 맛보게 해 준다. 이렇듯 '총각-처녀'형 서사민요는 민요 담당층의 솔직한 내면의식을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치밀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각편으로 형상화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앞으로 이 유형이 지니고 있는 미적 특질이나 사회적 의미 등을 다른 유형이나 다른 서사장르와 비교 논의함으로써 한층 심화 확대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유형구조, 기대성취형, 요구좌절형, 양면복합형, 정상적 해결, 역설적 해결.

19) 물론 '시집식구-며느리'유형에서도 <시집식구가 깨진 그릇 물어내라자 항의하는 며느리,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등은 항의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내는 '기대성취형'을 이루고 있어 독특하다.

참고문헌

- 강등학, 「서사민요의 각편 구성의 일면: 시집살이노래를 중심으로」, 『도남학보』 5, 도남학회, 1982.
- 강진옥, 「여성서사민요에 나타난 관계양상과 향유층 의식」, 『한국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464-513면.
- 고혜경, 「서사민요의 유형연구: 부부결합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 「서사민요의 장르적 성격」, 『민요론집』 4, 민요학회, 1995.
- 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 집문당, 1987.
- 박경수, 「한국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민요의 서술성과 구성원리: 서사민요의 장르적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8.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6.
- , 「서사민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 ‘시집식구-며느리’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221-246면.
- 이정아, 「서사민요 연구: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증보판.
-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 『한국구비문학대계』8-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충북편, 1991-1996.

<Abstract>

Structure and Meaning of Folk Ballads About Bachelor-Maiden

Seo, Young-Sook

This paper concerns abou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folk ballads about bachelor-maiden. Folk ballads about bachelor-maiden are constituted of three types. (1) The bachelor to ask in marriage with the ornaments that a maiden lost. (2) a bachelor who died due to lovesickness. (3)The bachelor and a maiden who fall in love digging up herbs. The structure can be classified with three sub-types: the one is the completion of desire type, the another is the in-completion of demand type and the other is the compound type. (1) type is mostly the compound type, (2) type the in-completion of demand type. (3) type the completion of desire type. Especially (2) type consists of a story that a maiden marry a dead bachelor. The story of the happy-ending is unreal, but the story of the unhappy-ending is realistic. This means that it is not easy for bachelors and maidens in the traditional society to be happy in love and marriage. This shows the paradox of life in the traditional society.

Women who create and transmit folk ballads about bachelor-maiden express their consciousness through them as follows.

- 1) They demand the true love between a bachelor and a maiden in order to marry.
- 2) They criticize and reject a traditional marriage system made without love.
- 3) They deny the women's status and is willing to overcome it.

Folk ballads about bachelor-maiden is composed of a dramatic narrative story and contains the frankness in women's consciousness. They could,

therefore, be got very high valuation in literal estimation.

Key wor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completion of desire type, the in-completion of demand type, the compound type, the happy-ending, the unhappy-ending.